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작업

1993.1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위원회

일본정부는 지난 7월 군위안부문제에 관한 2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으로 약칭)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보다 심도있는 재조사와 민간차원에 대한 조사 지원을 요구한 바있다. 실제로 2차 보고서 발표 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은 정부차원에서의 재조사와 민간연구에의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1) 한국내 연구

㉠ 식민지시기 총독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위안부관계 자료 몇점과 강제연행전반에 관한 다수의 자료가 발견되었다. 노무자 및 군인의 강제연행에는 물론, 위안부 연행에도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피해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기 및 폭력에 의한 강제동원과 위안소에서의 노예적 생활실태가 재확인되고 있다.

근로정신대가 실제 운용에 있어서 위안부로서의 착취와 중첩된 경우와 위안부로의 동원 수단이 된 경우가 몇건 발견되었다.

㉢ 학교 校史, 학도병 수기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있으며, 군청, 경찰서 등에 남아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식민지시기 총독부 관계자 및 군인들을 찾아 보고 있다.

(2) 일본내 연구

㉠ 군자료 및 군인들의 수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앙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교수는 발견된 군자료에 근거하여, 천황이 정점이 되고 육군참모총장, 육군성대신을 통하는 위안소정책의 명령계통을 밝히는 논문을 발표했다.

㉡ 현재 요시미교수를 총책임자로 하고, 전쟁책임자료센터가 후원하여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1차로 지난 10월 26일 부터 11월 5일에 걸쳐 10여명의 조사원이 동원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만권 이상으로 예상되는 위안부 관계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대협에서도 1차조사에 1명을 조사원으로 보내 참여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2차, 3차에도 계속 정대협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 조사는 한일 공동작업이라고 볼 수있다.

㉢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피해자 및 군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3) 한일공동연구

④ 양국의 연구성과를 교환하고 있다. 주로 정대협과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밖에 정신대연구회 및 개인연구자와 일본의 여러 연구모임 및 개인연구자 간에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정대협과 전쟁책임자료센터가 주최가 되어 지난 8월 동경에서 제1차 공동연구발표회가 열렸고, 12월 18,19 양일에는 서울에서 제2차 심포지움이 열릴 예정이다. 2차 심포지움에서는 위안소 실태, 위안부문제의 전체상, 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 등에 관해 양국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연구상황에서, 아직 발굴·조사되어야 할 위안 관계 자료와 관계자들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과, 민간차원에서의 연구에 더해 정부의 지원 및 직접적인 조사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